

연중 제 7 주일 가해

화답송

시편 103(102), 1-2. 3-4. 8과 10. 12-13

(후렴)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.

1.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 하여라. 내 안의 모든 것 도, 거룩하신 그이를 찬미 하여라.
 2. 네 모든 잘못을 용서 하시고, 네 모든 아 픔 을 없애 시는 분.
 3. 주 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 시 - 며, 분노에는 더디 시 나 자애는 넘치 시 - 네.
 4. 해 뜨는 데서 우리들의 허 물 을 멀리 치우 시 - 네.
 해지는 데가 먼 것 처 - 럼,

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 하여라.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 라.
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 시 고,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 시는 분.
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 시 - 고,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 시 네.
 아버지께서 자식을 가여워 하 - 듯, 주님은 당신을 가여워 하시 네.
 경외하는 이

알렐루야

(후렴)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- 야

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 키 면,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 되 리 라.